



**소비증가 요인은 적는데
생산증가 요인은 많다.**

IMF 체제를 맞이한 이후부터 현재까지 양계업은 호황을 누렸을까, 적자를 보았을까 냉정하게 분석을 해야 한다.

농가마다 상황에 따라 차이가 크다고도 볼 수가 있는데 부도위기에까지 몰렸던 농가들이 그런대로 현상대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적자보다는 흑자 경영을 한 농가수가 더 많다고 이야기해 볼 수가 있다.

그렇다면 얼마나 벌었을까? 이 또한 농가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아마도 금융권으로부터 차입한 원금과 이자 상환할만큼만 벌었을 것이다

라는 것이 대다수의 견해이다.

빚 갚을 만큼이 번 것이냐를 놓고 평가를 하자면 남들은 빚도 못 갚아 퍽퍽 부도가 나서 쓰러지는 판인데 빚 갚을 만큼 벌었으면 아주 성공한 것이라고 부러워 하는 사람이 많은 것으로 보아 양계업은 적어도 1998년에는 현상유지에는 성공했지만 향후 갚아야 할 부채에는 여유가 없다는 이야기가 많다.

왜냐하면 위기의식을 느낀 생산자들이 자체적으로 생산감축에 나서 소비는 감소했다지만 생산량은 소비수준에 맞추는 작업을 직·간접으로 한 결과 산물출하가가 생산비를 상회하는 수준으로 유지가 되어 부채상환할 여력이 생겼지만 앞으로의 상황은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산물가격 안정은 곧 생산량 증가를 예고하고

있다. 시장기능에 따라 가격이 결정되고 있기 때문에 공급량이 소비량을 앞지르면 출하가는 생산비 보장은 커녕 부실유통의 부도 등으로 견잡을 수 없는 손실이 생산자들에게로 돌아오게 마련이다.

경기회복세로 양계산물의 소비도 전년보다는 나아질 것이라는 한가닥 희망이 있다하더라도 큰 폭의 상승은 기대할 수가 없어 생산량이 전년 수준을 유지해야 빚 갚을 수가 있다고 보여진다.

그러나 이미 여러 가지 요인들로 볼 때 생산량 증가는 시작되고 있어 빠르면 하반기부터 소비보다 많은 생산량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을까 우려가 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양계인들이 입식량 감소로 당분간은 경기가 안정되지 않겠느냐라는 낙관론을 펴고 있어 지구책 강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양계업은 앞으로 몇 년간 차입금이 많아 금융비용 때문에 자칫 출하가가 생산비선 이하로 낮아지면 부실화는 막기 어렵게 된다. 자율경제 체제에서 모두가 흡족하게 사는 방법은 구하기 어렵겠지만 어쨌든 과열만 막는다면 공멸도 피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이제부터라도 서서히 생산과잉을 논해볼 때라고 지적하고 싶다.

육계의 경우 수입 닭고기가 국내 생산량의 약 4%가 넘게 수입이 되었다. 사료가 10% 가까이 감소한 것까지 합산한다면 국내 생산감소는 15%대에 이르고 있는데 환율은 계속 약세에 있고 국내 양계산물 생산비는 생산성의 저하와 유통구조의 취약으로 높아지고 있어 생산기반이 약화되는 결과가 초래되고 있으나 걱정하고 대비하려는 사람들이 적어 큰 문제가 아

닐 수가 없다. 우산은 재날에 비오는 날을 위하여 준비한다는 속담을 되새겨 보았으면 한다.

병아리 생산량 예측 흐름이 변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양계업은 입추가 계획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경기전망과 입추 당시의 상황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항시 병아리 생산량은 곧 산물출하량을 암시하는 지표로 활용이 되어 왔다.

상업용 종계의 경우 검정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전량 양성화라는 등식은 성립될 수 없어서 사료 생산량을 참고하여 늘 병아리 생산량을 추산하여 왔다.

그래도 큰 흐름은 일치하였으나 최근에 와서는 아마도 병아리 가격의 상승으로 환우계와 산란성적이 나쁜 계군이 많아지면서 병아리 생산량을 분석해 내는게 매우 어려워졌다고 보여진다.

종계사료는 감소 폭이 큰 대신 육계사료나 산란사료 생산량은 감소 폭이 덜해 병아리를 외국에서 수입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잠재력보다 매우 높은 수준으로 생산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단순히 경제주령 범위내에 있는 유효종계의 생산잠재력으로 경기 전망을 한다면 정확성이 낮아질 수밖에 없음을 알아야 할 것이다. 환우를 부정적 시각으로만 보아 의도적으로 생산잠재력에서 제외하거나 일명 백세미로부터 생산될 수 있는 병아리 잠재력을 현실성 있게 분석하여 경영지표를 세워나가야 할 것이다.

계란등급간 수급불균형 농가소득 저하요인

현재 우리나라의 계란유통은 중량별로 정한 등급에 따라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 특란부터 경란에 이르기까지 5등급으로 분류가 되는데 유통과정에서 70g 이상을 따로 분리하여 왕란으로 취급하는 것이 보편화되어 있다.

금융위기 이후 초생추 입식이 감소하고 대신 환우계가 급증한 상태에 놓여 있어 왕란과 특란의 생산량은 급격히 증가한 대신 중·소·경란의 비율은 낮아졌다. 육종개량의 진전으로 일부 갈색산란계의 품종들은 초산시의 난중이 45g을 넘고 있어 사실상 경란 생산량은 무의미하다라고까지 평가를 내리는 상황이다.

계란을 중량별로 나누어 등급별로 일정비율을 맞추어 전체 중량 단위로 소비시키는 선진국과는 달리 등급 그대로 같은 가격에 유통을 시키는 우리의 경우는 계란 출하시나 소비자에게 판매할 때 합리성이 적어 그로 인한 불협화음이 많은 수밖에 없다.

지금과 같이 등급간 가격차는 1원인데 반해 대란 최저중량이 54g이고 특란 최고 중량이 69g이기 때문에 무려 17g의 차이가 난다. 중량이 무거울수록 당연히 사료소비량은 증가하고 있다. 등급간 가격차가 크다면 그런대로 큰 알을 생산하는 것이 유리할지는 모르지만 가격차가 거의 없는 때에는 산란수를 그대로 유지시키거나 늘리는 대신 난중은 최대한 낮추는 것이 경영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이다.

노계가 많고, 육종학적으로 난중을 크게 개

량한 갈색산란계의 특란 평균 중량은 65~67g에 이른다. 규정상 특란은 60g 이상이므로 특란을 출하할 때 고주령 계군은 5~7g을 제값도 받지 못하고 넘겨주는 셈이다. 그 이하 등급도 마찬가지이다.

계란출하가 주로 상인과 상대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에 생산자들이 아무리 이 같은 비현실성을 개선해야 한다고 요구해 보았자 상인들에겐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할 것이다.

그렇다고 손해가 가는 일을 묵과하면서 계속 반복할 수는 없는 일이다. 양계인들은 등급간 계란생산이 어느 정도 균형을 이루어 다시 가격차가 생길 때까지 거래하는 사료업체와 협의하여 사료영양체계를 변화시켜 난중을 하향시킬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운영의 묘라고 생각된다.

그간 등한시 하였던 사료요구율에도 관심을 가져야 할 때인 것 같다. 농장에 앉아서 계란시세와 할인 폭만 계산할 것이 아니라 생산비를 줄이면서 출하에 큰 무리가 없는 방법을 찾아 내실을 기하면서 서서히 근본을 바꾸어 나가려는 자세가 요구되고 있다.

계란출하가를 생산자가 직접 상인들과 협의를 거쳐 고시하는 체계를 가지고 있어 외국사람들로부터 부러움을 사는 면이 있긴 하더라도 그 안에서 불합리한 요소가 발견되면 어려움이 따르더라도 고치려는 적극적인 노력이 있어야 더 발전된 체계를 구축할 수가 있다. 지금과 같이 고시는 있되 상인들이 계산해 주는대로 정산하고, 난중마저 비싼 사료먹여 기준보다 더 무니 없이 무겁게 준다면 과연 남는 것은 무엇인가를 따져보아야 한다. 남기려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이다. **양계**